

“가성비 확대”... 대형마트,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이마트, 최대 50% 할인혜택 제공 롯데마트, 1만원이하 초저가 선별 홉플러스, 실속형 세트 80% 구성 행사카드·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일제히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에 나선다. 최대 50% 할인 혜택을 늘리고 초저가 상품군 비중을 확대하는 등 고물가 시대에 맞춰 ‘가성비’ 실속 쇼핑에 초점을 맞췄다.

이마트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본 판매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5일 밝혔다. 행사카드를 통한 최대 50% 할인 혜택과 더불어 결제 금액대별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증정한다.

과일 선물세트에서는 사과 세트 가격을 작년 추석 대비 평균 10% 낮췄다. 가장 저렴한 사과 세트는 ‘당도선별 사과(3.7kg, 14입)’로 사전예약 가격과 동일한 3만9900원에, ‘유명산지 혼합 세트(사

과 6입, 배 6입)’ 역시 사전예약과 같은 7만9200원에 선보인다.

축산 선물세트에서는 10만원대 초반의 본판매 전용 한우 세트를 20% 할인가에 선보인다. ‘피코크 1등급 한우 갈비 등심 세트(등심 500g, 갈비 800g, 양념소스)’를 10만2400원에, 오마카세 콘셉트의 ‘1등급 한우 육마카세 세트(등심·채끝·안심·부채·안창·삼각 각 150g)’를 10만8000원에 판매한다.

수산 선물세트는 사전예약 혜택을 전 품목 유지한다. 특히 옥돔·갈치 등 선어 세트는 전품목을, 굴비 세트는 인기 세트 6개의 판매가를 작년과 동결했다. 이번 추석 첫 선을 보이자마자 막강한 가성비로 수산 세트 매출 1위를 차지한 ‘특선 제주 옥돔 세트(1kg 내외, 8미 6만3200원)’가 대표적이다.

롯데마트도 7일부터 추석 당일인 17일까지 11일간 전 점에서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한다. 본판매 기간 동안 선물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 대상으로 구매 금액별 최대 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증정 혹은 행사카드 결제 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비비고 토종김 5호(72g)’와 ‘양반 들기름김세트(72g)’를 각 9900원에 판매하며, ‘휠라 스포츠 양말세트(3매)’와 ‘컬럼비아 중목 양말세트(3매)’는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한 각 6930원, 7630원에 선보인다. 전년 추석 대비 준비 물량을 20%가량 늘린 ‘닛츠박스 매일견과 세트(20봉)’는 1만9900원에 ‘원플러스스원(1+1)’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고객 수요가 높은 핸드캐리형 과일,김 선물세트를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 ‘충주 사과(3kg)’와 ‘나주 배(3kg)’, ‘샤인머스켓(3kg)’, ‘한판 제스프리 골드키위(15입)’가 있으며 각 1만9990원에 오는 12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 ‘성경 보성녹차 정성L호(96g)’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1만1900원에, ‘광

천 김수미 재래김 선물세트(80g)’는 1만4500원에 판매하며 10개 구매 시 1개를 덤으로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초저가 상품 외에도 5만원대 내외 과일/버섯, 10만원대 축산 상품 등 저가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선보인다.

홉플러스 역시 엄선된 상품을 최대 50% 할인가에 제공하는 ‘2024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행사를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실시한다.

홉플러스는 앞서 진행한 추석 선물세트 사전예약의 고객 구매 패턴을 분석해 본 판매 구성을 더욱 알차게 준비했다. 5만원대 이하 실속형 세트를 전체 80% 수준인 약 780여종으로 구성해 고물가 속 물가 부담 낮추기에 주력했다.

대표적으로 ‘동원 양반 돌김 세트(3만9970원)’, ‘전통양념 너비아니구이 냉동 세트(4만6130원, 5+1, 전점 3000세트 한정)’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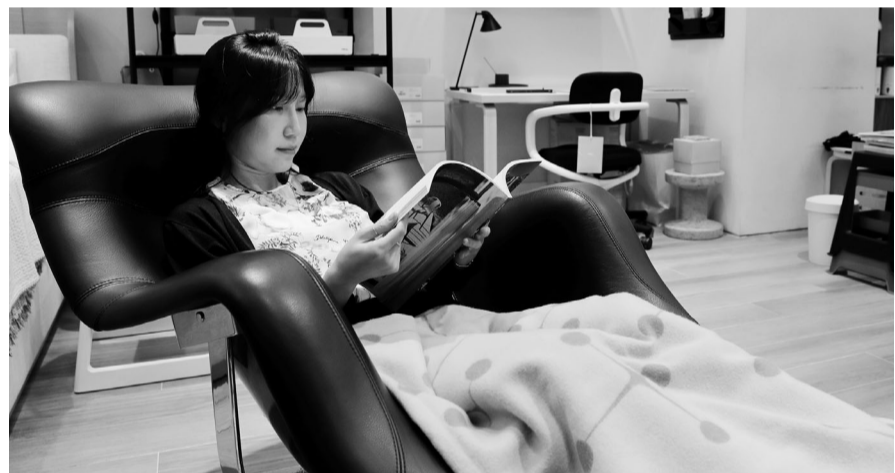
신선식품 구매도 더욱 다양해졌다. ‘농

협안심한우 정육갈비 혼합 냉동세트(15만6000원)’, ‘농협안심한우 꼬리한별 냉동세트(7만2000원)’ 등이 있으며 ‘농협안심한우 갈비 냉동세트(20만원, 전점 2850세트 한정)’는 전년 추석보다 물량을 400세트 더 늘렸다.

과일세트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나주 배 세트(5만4900원)’, ‘샤인머스켓·사과·배 혼합세트(6만9900원)’, ‘제스프리점보 골드키위 세트(3만9900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건강 선물세트도 저렴하게 내놓는다. ‘정관장 홍삼원(2만5600원)’, ‘중근당건강 아임비타 멀티비타민 선물세트(3만3700원)’ 등이다.

고급화 전략을 앞세운 프리미엄 선물세트도 다채롭게 기획했다. ‘No.9 1++등급 한우오마카세 냉장세트(49만9000원)’, ‘글렌그란트 21년(35만1000원, 전점 270세트 한정, 상품권 증정 및 즉시 할인 제외)’ 등이 있다. **나다운 기자**



광주신세계,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선봬 광주신세계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발맞춰 1인용 가구를 선보인다. 본관 8층 ‘까사미아’에서는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의 베스트셀러인 우스터를 만날 수 있다. 같은 층의 ‘토레’ 매장에서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를 만날 수 있다. 토레가 추천하는 1인용 리클라이너 소파 캐슬은 고급차량들의 내장재로 주로 사용되는 알칸타라를 사용한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은행, 전남대병원에 헌혈증서 200매 기증

2018년부터 임직원 헌혈 캠페인

광주은행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고병원 광주은행장과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모은 헌혈증서 200매를 기증하며 지역사회 혈액 공급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2018년부터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헌혈로 사랑을 나눠요’ 캠페인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광주은행 본점 앞 헌혈버스에서 본점 임직원을 비롯 본점 입주사 직원들과 현장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많은 시민들로부터 눈길을 끌었다.

캠페인 이후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증을 기부해 행사의 열기를 고조시켰으며, 한 달간 모인 임직원 헌혈증서 200매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남대학교병원에 기증하며 원내 의료 취약 환자를 위해 써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증에 동참한 한 임직원은 10년 이상 보관 중인 41장의 헌혈증을 의미 있게 써달라며 기부해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기도 했다.

정신 전남대학교병원장은 “자발적으로 생명나눔을 실천해 헌혈증서를 기증해 준 광주은행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에게 안정적인 혈액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병원 광주은행장은 “헌혈 가능 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은행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전남대학교병원과 상생하며 지역 대표은행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2010년부터 매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모금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2022년에는 광주·전남 최초로 대한적십자사 10억 기부클럽에 이름을 올리며 지역사회에 나눔 봉사의 아름다운 기업문화를 전파하는데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최권범 기자**

기아 오토랜드광주, 추석 사회공헌활동 ‘훈훈’

독거노인에 식품·생필품 전달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5일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독거노인들과 명절의 정을 나누고자 식품·생필품 꾸러미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광주시 남구청 중회의실에서 진행된 후원행사에는 김순옥 남구 부구청장과 이성태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서성철 기아 오토랜드광주

워크엔라이프팀장이 참석해 지역사회에 명절의 정을 전했다.

후원행사를 통해 기아 오토랜드광주는 지역사회 독거노인들에게 드릴 ‘情 나누기 꾸러미’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情 나누기 꾸러미’는 쌀, 김치세트, 찜기름세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남구청과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 독거노인 1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소영 기자**

전남신보, 지역 소상공인에 ‘더 드림 특별보증’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전남도 내 소상공인의 경제적 위기극복을 도울 수 있도록 ‘더 드림(DREAM) 특별 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보증은 전남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존 전남신보에서 이용하고 있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최대 3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할인 가맹점일 경우 최대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할인 가맹점이 아닌 경우에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는 저출산·인구유출 등 지방위기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도내 생산물품 판매 촉진, 관광객 유치 등 전남 발전을 위해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정책자금과 연계해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자금 중 하나인 ‘전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연계할 경우 최대 3.5%p 이자지원으로 고객은 최저 1.8%의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또 보증료율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1% 고정요율을 적용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였다.

이강근 전남신보 이사장은 “고금리·고물가의 여파로 관광객 및 소비수요가 감소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전남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다운 기자**

재테크 칼럼

호재 많은 비트코인 분할매수 기회 아닐까

비트코인이 지난 3월 이후 5개월째 횡보와 하락을 거듭하며 투자자들을 애타게 하고 있다. 한때 7만 달러를 돌파했던 비트코인은 지금 5만 8000달러까지 하락했다. 비트코인이 거시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시장은 달러 풀기로 밀어 올린 미국경제의 위험성에 주목하고 있는 때문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5만달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만약 미국경제가 경착륙한다면 그 이하로도 추락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의 주변 여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은 호재가 넘쳐있다. 투자자들이 지나간 호재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ETF 승인은 단기간에 끝날 재료가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 단계이고 보수적인 투자자들을 서서히 시장에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라는 점도 중요하다. 이미 비트코인 ETF는 90만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역사상 가장 성공한 ETF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소위 고래 투자자라고 하는 투자은행을 비롯한 기관들의 비트코인 투자에도 비트코인 ETF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매우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각국의 연기금들도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한국의 국민연금도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에 약 5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한다. 마이클 세일러가 운영하는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는 거의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팔지않고 보유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회사에 투자했다는 것은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 더구나 세계 15대 부호인 텔 컴퓨터의 창시자 마이클 텔이 최근 비트코인을 언급했는데 애플, 버크셔 해서웨이 등 수백억 달러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인플레이션 회피용으로 비트코인을 일부 보유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욱 가증될 것이다. 미국 대선후보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

로 발표했듯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의 하나로 인정해서 팔지 않고 보유하게 되고 이런 정책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수요는 더욱 폭발할 것으로 보인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호재는 어느 때보다 많다. 그런데도 비트코인 시장이 수 개월 동안 부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상황은 오히려 비트코인의 분할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 장기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단기 투자자라면 무엇보다 미국경제의 경착륙의 향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